

용산~강남 복선전철사업(BTO) 사업추진회의 및 상생간담회 개최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용산~강남 복선전철사업(BTO)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월 21일 본사에서 사업시행자인 새서울철도(주) 외 11개 협력사와 상생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추진해온 실시계획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앞으로 원활하게 사업실시계획승인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단이 발표한 협약내용개선(안)에 깊은 공감을 표했으며,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현정 광역/민자철도차장은 "앞으로도 민간사업시행자 및 협력업체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국가 및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설본부 최현문 기자〉



직원가족 초청 직장문화체험 프로그램 시행

- 철도현장 견학, 레일바이크 체험 등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총 2회에 걸쳐 '건강한 직장,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각각 직원가족 40명을 초청하여 가정친화(Work-Life Balance) 프로그램인 직장문화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가족들이 공단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보고 업무 현장을 둘러봤을 뿐만 아니라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 견학, 레일바이크 시승, 수목원 방문, 김유정 문학박물관 관람 등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신입직원과 가족들은 "공단과 철도 건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가족과 행복한 한때를 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진현 노무복지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과 자긍심을 높여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정 친화적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본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5월 24일, 청년인턴 25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업무능률과 조직 적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담회를 시행했다. 간담회에서 인턴사원들은 정규직 채용 시 우대사항 확대, 현장경험과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보다 많은 현장 답사 및 방문, 그리고 공단과 철도공사 업무 차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간담회 실시 전 인턴생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도권본부 청년인턴의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었으며(보통 20%, 불만족 0%), 공단 내 조직문화 경험이 추후 회사 생활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본부는 하반기에도 간담회를 시행하여 인턴사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도와줌으로써 올바른 조직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공단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수도권본부 이기재 기자〉

자매마을 어린이 초청 철도사랑 캠프 시행

- 철도건설 현장 견학 및 레일바이크 체험 -

강원본부(본부장 이동춘)는 5월 22일 자매마을 고산초등학교 어린이 24명을 초청하여 태백선 제천~쌍용 철도건설 현장 교량 및 터널 견학, 영월 장릉과 청령포 역사탐방, 정선 레일바이크 등을 체험하는 철도사랑 캠프를 시행했다.

'교육·문화 사랑' 운동의 일환인 철도사랑 캠프는 '08년부터 시작돼 올해 여섯 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미래의 고객인 어린이들이 철도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번 철도사랑 캠프는 태백선 제천~쌍용 철도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송학터널과 구학터널 및 교량 공사 작업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철도건설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본부장은 "정선 레일바이크 등 신나는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철도에 대한 좋은 추억을 평생토록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원본부 오재훈 기자〉



평창군 '더위사냥 축제장' 조성에 토사 지원

강원본부(본부장 이동춘)는 평창군에서 2013년 8월 2부터 11일까지 개최하는 '평창더위사냥 축제' 부지 조성에 필요한 토사 약 5000m³를 축제장 인근 '원주~강릉 제6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로 지원한다.

본부와 평창군은 2012년 6월 착공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여 왔으며, 이번 토사지원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이 본부장은 "평창군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 '원주~강릉 철도' 개통을 위한 건설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평창군의 요구안을 사안별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청본부, 장애인 햇빛보기 봉사활동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 직원과 가족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5월 26일 '대전 평강의 집 중증장애인 햇빛보기' 행사에 참여해 몸이 불편하여 외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야외 활동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충청본부 봉사단은 중증장애인과 싱그러운 햇살 아래 야외 게임, 공연 관람 등 체험프로그램을 함께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장을 찾은 평강의 집 장애인들은 본부 KR봉사단과 가족들에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다"는 소감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참여

- 중고 PC와 노트북 등 전산장비 547대 기증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5월 22일 한국IT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일환으로 공단의 업무용 중고 PC 및 노트북 등 547대를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기증했다.

본부에서 기증한 전산장비는 대전시 관내 아동센터 30곳에 무상 보급되어 철도변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다.

김 본부장은 "이번에 시행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참여를 비롯해 전 직원이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연탄배달, 김장 나누기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시판

주요뉴스 ('13.5.25~'13.5.31)

- "올해도 8000억원 아껴 '예산 절감' 모범 되겠다" (파이낸셜26)
- 철도공단 장애인 햇빛보기 봉사 (충청투데이22, 동아일보18A)
- 수인선 송도·용현역 사이 학익역 2015년말 완공 (파이낸셜26)
- 오늘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간담회 (경북일보01)
- 신분당연선 서빙고 거쳐 은평까지 (매일경제30)
- 새 도로·철도엔 5년간 財政투입 안한다 (조선일보01)
- 공약財政 135兆 중 110兆는 집권 중·후반기 마련 (조선일보05)
- KTX광주권 전차역 어디로? (서울신문12)
- 지방정부·공기업 빚 100兆 육박 (서울신문08)
- 철도시설소, 석불~양동역 태양광 발전시설 유치 (서울경제31, 세계일보14, 국민일보10, 충청투데이09)
- 수인선 학익역 2015년 생김다 (인천일보15)
- 정부 '도로·철도 신규 투자 중단'에 반 및 반 (조선일보01)
- "영남권 신공항·GTX 건설 등 공약 못지 않게 돼" (조선일보05)
- 동서고속철 건설 무산 우려 (강원도민01)
-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간담회 중앙부처, 급작스런 연기 통보 (대구일보04)
- "신공항 수요조사 선행의 불가" 대구·부산 국토부 요구에 난색 (서울신문12)
- MB정부와 선전기 나선 국토부 (서울신문18)
- "고용률 70% 달성 위해 시간제 일자리 늘릴 것" (중앙일보10)
- 8개 공공기관, 올 청년인턴 절반이상 정규직 전환 (동아일보B02)
- [사설] 불요불급 SOC 줄이되 福祉의 효과도 꼼꼼히 따져야 (조선일보31)
- [사설] 공기청정기 공백,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중앙일보30)
- 철도시설소, 가족 직장체험 (충청투데이08)
- 청도역 지하차도 4차선 확장 개통 (대구일보10, 경북일보08)
- 건설사 재무구조 '속 빈 강정' (서울경제27)
- 靑 "재정투입 신규 SOC 사업만 제한" (서울경제08)
- 차정부, 140개 국정과제 최종확정 (서울신문02)
- 예산 갈등, 주민 반발... 행복주택 불협화음 (중앙일보B1)
- 오피니언-정부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조선일보31)
- 동해남부선 복선화 구간 11월 일부 개통 (부산일보14)
- 청도역~인송읍 지하차도 확장 개통 (영남일보10)
- 김천 속원사업 '남부내륙철도' 차질 (대구일보10)
- 교통·물류부문 예년치 올해 134만 절감한다 (파이낸셜20)
- 차정부 행복주택, 5개 걸림돌 넘어야 행복해진다 (조선일보B07)
- 고위공무원 인사 적체 어떻게 뚫어나 (서울신문12)
-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무 은 정부 (조선일보34)
- 잠재부채 437조 괴물 (서울경제38)
- 철도공단 '철도산업정보 공유 협의회' (충청투데이22)
- "공기업 평가때 부채성적 등 고려해야" (파이낸셜25)
- 철도차량 설계부터 안전점검 (내일신문15)
- 100대 건설사 중 23곳 구조조정 중... 자산 팔아 힘들게 연명 (조선일보B03)

경조사

■ 기획혁신본부 성과관리처 정지은 과장 부장상
기술본부 차량처 김정곤 과장 부장상
- 발인: 2013년 5월 27일